

청소년의 자존감 결정요인: 자기-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김 순 혜¹⁾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는 Harter의 자아체계 모형을 기본 가정으로 하여 자존감 결정요인을 자기 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로 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를 활용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의 4차 자료(2007년도)와 중학교 2학년의 4차(2007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같은 시기에 중학교 1학년과 같은 해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이며 표집인원은 중학생 2,844명 고등학생 3,449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패널자료의 문항 중 Harter(1982)의 SPPC(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검사에 있는 역량지각 측정 문항, 그리고 사회적 지지 측정 문항과 의미가 유사한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존감의 결정요인으로 영역별 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둘째, 자존감의 결정요인으로 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를 포함시킬 수 있지만 자존감과 하위요인들은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측정해야 하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자신에 대한 전반적 가치감인 자존감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 셋째, 자존감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은 학업역량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신체외모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넷째, 자존감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인 요인은 교사지지였고, 중학생이 교사지지를 더 높게 지각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인지·사회·정서 면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자존감을 형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개입할 때,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자존감, 자기 역량지각, 사회적 지지

* 이 연구는 2010년도 경원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1) 교신저자 :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E-mail : soonhye@kyungwon.ac.kr)

I. 서론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과 평가를 내포하는 개념으로서 자기가치감, 자기개념 등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자존감은 인간행동의 동기적 요소로서 작용하여 개인의 적응 및 성격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청소년의 자존감은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조절변인으로 작용해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Uhrlass, 2008; Baumeister, 1993; Cole, 1990). 1990년에 “자아존중감을 향해(Toward a state of self-esteem)”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캘리포니아 보고서’에 따르면, 품행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낮은 자존감이 난폭한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폭력은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자존감은 발달과 적응 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 면에서 자존감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수많은 자존감 관련 연구들이 나타났는데,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타당화 연구로서 자존감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 구인 내(within construct) 연구이고, 둘째는 자존감의 결과요인을 밝히는 구인 간(between construct) 연구이며, 마지막으로 자존감에 대한 발달연구들이다.

먼저 자존감의 내적구조를 밝히려는 연구들(Harter, 1986; Song, 1984; Shavelson, 1976)은 자존감이 단일차원의 구조가 아니라는 Wylie(1979)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러 학자들(Harter,

1986; Marsh, 1994; 송인섭, 1994)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자존감을 다면적·위계적 구조로 보는 입장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이들 중 Harter(1986)는 청소년의 생활 각 영역에서의 자기평가인 역량지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자존감의 하위요인인 영역별 역량지각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인 자존감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통적인 자존감 이론은 주위인물로부터의 반응과 평가를 통해 자존감이 형성된다는 전제 아래 면경자아(looking glass)의 개념을 도입했다. James(1890), Cooley(1902), Mead(1934)로 이어지는 사회적 자아이론은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아동은 부모, 교사, 또래와 같은 중요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받는 반응과 평가를 내면화시키면서 자존감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즉 중요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수용은 긍정적 자존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 거부와 멸시는 자존감의 손상을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존감 형성은 I-Perception(내가 보는 나)과 Me-Perception(남이 보는 나)이 함께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arter(1988) 역시,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perceived competence)과 중요타인들이 내리는 평가에 대해서 지각하는 자기-수용(perceived acceptance)을 자존감 결정요인으로 간주하면서 자신의 자아체계 경로분석 안에 자존감의 선행요인을 위의 두 가지 즉, 자신의 역량에 대한 지각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을 함께 가정하여 이론적 통합을 시도했다.

두 번째 연구 유형은 자존감의 결과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구인 간 연구(Uhrlass, D. J.,

Crossett, S. E. & Gibb B. E., 2010; 김순혜, 2001))로서 학업성취, 동기, 우울이나 비행 같은 심리적 부적응 등이 자존감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연구와 더불어, 최근에는 자존감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해 심리적 부적응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적 자아의 형성시기와 발달, 영역 특수적인 역량지각의 발달을 근거로 자존감과 역량지각의 변화와 안정성 여부를 밝히려는 연구들이다. Harter(1982)에 의하면, 아동은 8세가 되어야 영역별로 자신의 역량을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Harter는 역량지각의 하위척도를 아동용, 청소년용, 대학생을 구분하여 구성하였는데, 아동의 경우는 학업역량, 사회적 수용도, 운동역량, 신체적 외모, 품행의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는 이성 관계와 우정, 직업영역이 포함되었고, 대학생의 경우는 창의성, 지적 역량, 도덕성, 유우머, 부모관계 등을 추가하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역량지각이 구체적인 개념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 동시에 발달에 따른 분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후 발달에 따른 하위영역별 역량지각의 발달 현상에 많은 연구들(한중혜, 1996; Stipek, 1992)이 집중되었다.

영역별 역량지각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Wigfield et al., 1997; Marsh, 1989; Diane & Ruble, 1986; Shavelson et al., 1976). 즉 자기지각이 비현실적인 것에서 현실적으로 변하면서 역량 지각을 낮게 한다는 것이다. 아동들은 유치원에서 초

등학교 저학년 사이에 놀랄만한 사회적·인지적 변화를 겪게 된다.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대부분의 아동들의 자기 지각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자기 기대감으로 인해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이 된다(Eccles, Midgley, & Adler, 1984; Wigfield, 1994). 그러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능력과 관련된 피드백을 자주 받게 되면서 자신의 평가를 수행에 기반을 두게 되고 성공에 대한 기준도 보다 객관적이 되면서 수행에 대한 평가도 자신의 이전 수준의 수행보다는 외적인 평가, 즉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Ruble & Frey, 1991).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하나의 이행이 자신이 어떤 영역에서는 잘하지만 잘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Marsh, 1990). 이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동안에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영역 특수적인 자기개념은 낮아지게 된다(Wigfield et al., 1997).

아동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이행기는 중학교 입학이다. 이때는 청소년 초기로서 생리적·인지적·정서적 변화가 큰 시기이다. 생리적으로는 사춘기가 시작되고, 인지적으로는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며, 감정기복이 심한 정서적 변화를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자기-지각은 회복되기 시작한다(Harter, 1998). 이것은 자기개념의 일반적 원리로서 긍정적 자기개념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인 동시에 사회인지적 전략 사용으로 자신의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동기화되기 때문이다(Harter, 1989). 그러나 영역특수적인 역량에 관한 연구(Marsh, Relich, & Smith, 1989)에서 보면, 중학교의 교

육과정이 전보다 너무 높아져 자신의 발달단계와의 불일치를 보이기 때문에 학업역량은 낮아지지만 그 외의 모든 역량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영역특수적인 역량에 대한 연구결과는 상당히 혼합되어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청소년 후기인 고등학생이 되면서 또 한 번의 이행기를 갖게 되지만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시기는 신체적·인지적·사회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외국의 경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이행을 하나의 이행기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생들과 보내기 때문에 학교급만 고등학교로 변했지 실제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국내에서도 고등학생들의 자기 지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호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 역량지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Marsh(1989)는 중2에서 중3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고2 때에는 조금씩 높아진다고 하면서, 외모와 운동역량은 올라가지만 학업역량은 안정적이라고 보고했다. Cole(2001)은 인지적 역량이 커지는 고등학생은 중학교 때의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되면서 학업역량에서 회복을 보일 것이라는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자존감에 대한 연구는 그 양이 엄청나게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도 혼합된 결과를 보이는 것이 많다. 특히 영역특수적인 역량지각에 대한 발달연구들은 문화적 차이, 교육환경의 차이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모지상주의의 문화,

입시위주의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 같은 차이가 외국의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에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유아기에는 부모의 인정이 자아 형성에 가장 크게 작용하지만,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또래 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한다. 이처럼 발달과 함께 또래평가가 자존감과 높은 상관을 보이지만, 부모의 인정과 자존감 사이의 상관은 적어도 청소년기까지는 감소하지 않으며 부모의 견해가 여전히 중요하다(Harter, 1990). 그러나 청소년 중기에서 후기, 즉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원에 대한 지각의 발달은 이들의 사회심리적 발달단계로 볼 때,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기 때문에 부모보다는 또래나 교사 같은 다른 지지원의 필요성을 더 크게 지각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원에 대한 지각의 발달이 청소년 중기와 후기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 그에 따른 부모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원에 대한 지각은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부모, 교사, 친한 친구를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역량지각 중 사회적 수용도 안에 학교 친구와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어 친한 친구의 지지를 사회적 지지원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고민을 들

어주는 사람 등으로 정서적 지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본 연구는 자존감에 대한 구인 내 연구이면서 발달연구이다. Harter의 자아가치체계 모델을 기본 가정으로 하여 자존감의 결정요인을 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로 보고, 이러한 하위요인들이 자존감이라는 상위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려 한다. 또한 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의 자기지각수준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서 안정적인지 아니면 변화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외국과는 차이가 있어 외국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본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이행이 외국과는 달리 학교가 달라지는 변화이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이행이 청소년의 자존감이나 역량지각에 큰 변화를 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자존감은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적 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자존감을 낮게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자존감은 대체로 안정적이고 변화시키기 어려운 구인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덜 안정적이고 변화시키기 쉬운 하위요인들을 수정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따라서 중학생의 자존감 증진을 위해서는 하위요인 중 어떤 요인 수정에 주력해야 하고 고등학생은 어떤 요인을 강조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이론의 실제적 적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대단위 표집으로

된 패널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자존감, 역량지각, 사회적 지지는 중·고등학생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2. 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는 중·고등학생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자존감과 역량지각, 사회적 지지간의 구조적 관계는 중·고등학생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연구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2003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과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2004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 중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동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다양한 특성과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표집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으로서 12개 특별시·광역시·도별 중학교 2학년 학생 수에 비례해 지역별 목표 표본수를 할당하여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선정·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의 4차 자료(2007년도)와 중학교 2학년의 4차(2007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패널자료가 종단적 변화 양상을 보기 위한 자료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변화보다는 비슷한 시대상황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중학교 1학년과 같은 해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패널자료의 문항중 Harter(1982)의 SPPC(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검사에 있는 역량지각 측정 문항, 그리고 사회적지지 측정 문항과 의미가 유사한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항들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들을 선정하고,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각 측정변인들의 단일차원성을 검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해 χ^2 , CFI, NFI, IFI, RMSEA 값을 사용하였으며, 최종문항에서 제시된 높은 적합도를 생성하기 위하여 최초 문항에서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값 0.4이상을 기준으로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을 실시하였다. SMC는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이다. 확인요인분석을 토대로 측정모델 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87.489$, $df=259$, $p=.000$, $CMIN/DF=3.365$, $NFI=.970$, $IFI=.979$, $CFI=.979$, $RMSEA=.019$ 로 나타났다. χ^2 검정은 그 값이 크면

모델이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내릴 수 있지만, χ^2 검정에서 기각되었다는 것이 모델을 채택할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적합도 지수를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모델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NFI, IFI, CFI, RMSEA 값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GFI, AGFI, RMR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본 연구의 자료가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결측치가 많아 결측치를 평균과 오차를 추정해서 처리했기 때문이다. 표본특성에서 자유로운 CFI (comparative fit index)를 비롯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0.9이상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델의 간명도 지수인 RMSEA는 0.19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0.6보다 훨씬 작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항목들과 개념간의 비표준화 요인부하값과 다중상관자승(SMR)값을 보면, 잠재변인과 측정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모수추정치가 모두 0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추정치에 대한 C.R. 값도 모두 2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그리고 SMC 값은 0.4이상의 값을 보여 잠재변인이 해당변인들의 변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일차원성은 각 개념의 측정변인들이 단일요인모델에 의해 수용가능한 적합도를 보이는가의 문제이고 신뢰도는 내적일관성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의 모든 변인의 신뢰도는 .65에서 .88 사이로 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은 중학생 집단의 측정모델 평가표이다.

표 1. 측정모델의 평가

	측정변수	요인 적재치	표준화된 요인적재치	표준오차	C.R.	SMC	신뢰도 (alpha)
자존감	자존감 3	1.000	.812	-		.665	
	자존감 2	1.094	.877	.019	57.666	.766	.825
	자존감 1	.836	.668	.017	49.482	.441	
학업역량	수학	1.000	.553	-		.435	
	영어	1.358	.749	.054	25.146	.559	.651
	국어	.782	.576	.030	25.650	.410	
사회적 수용도	사회 2	1.000	.733	-		.570	
	사회 1	.931	.596	.044	21.354	.431	.602
품행역량	품행 3	1.000	.767	-		.632	
	품행 2	1.072	.767	.059	18.176	.548	.740
신체역량	신체 3	1.000	.804	-		.623	
	신체 2	.880	.667	.023	37.816	.455	.768
	신체 1	.916	.696	.024	38.227	.505	
부모지지	부모 6	1.000	.780	-		.618	
	부모 4	1.013	.720	.039	26.110	.510	.717
친구지지	친구 2	1.000	.957	-		.917	
	친구 1	.909	.822	.029	33.942	.617	.880
교사지지	교사 2	1.000	.759	-		.586	
	교사 1	.892	.623	.051	17.593	.489	.645

측정모델 적합도

$\chi^2=87.489$, $df=259$, $p=.000$, $CMIN/DF=3.365$, $NFI=.970$, $IFI=.979$, $CFI=.979$, $RMSEA=.019$

모든 C.R. 값은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함

역량지각

학업역량. 학업역량이란 학교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학업수행 정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 가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학기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 대해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수준으로 정하였다. 3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못하는 수준’에서 ‘매우 잘하는 수준’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사회적 수용도. 사회적 수용도란 청소년 스스로가 또래친구로부터 얼마나 수용되고 있는

며, 인기가 많은지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 알아보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품행역량. 품행역량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방식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기분 나쁜 일을 빨리 잊으려고 한다든지,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행동조절과 관계된 문항을 선정하였다.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신체외모역량. 신체외모역량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키, 몸무게, 얼굴 모습 등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외모와 관련된 키, 몸무게, 얼굴모습 등에 대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문항을 선정해서 역산을 하여 사용하였다.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자존감.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하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전반적인 능력, 성격, 가치감을 묻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

부모지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있는지와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또래지지.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문항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친한 친구와 고민을 나눌 수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교사지지. 선생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문항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선생님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정도와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과 AMOS 18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연구문제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먼저 중학생 패널자료와 고등학생의 패널자료가 같은 문항이지만 두 집단이 같은 방식으로 인식을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성 검증을 하였다. 동일성 검증을 위해서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그리고 절편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이 모든 것이 성립한 후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평균값을 비교하기 위해 각 변인 간의 표준오차를 고려할 수 있는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에 자존감에 미치는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집단별로 알아보았으며, 집단 간 경로계수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다중집단분석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의 잠재평균 분석

첫 번째 연구문제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오차를 고려할 수 있는 잠재평균분석을 하였다. 잠재평균 분석에서 요인의 평균은 직접 추정이 어려우므로 비교집단의 평균을 0으로 가정해 놓고 측정 집단의 잠재평균을 측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즉 중학생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추정된 고등학생 집단의 잠재평균은 고등학생집단과 중학생 집단의 잠재평균차이가 된다. 따라서 잠재평균의 차이가 유의하다면 두 집단의 잠재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 2에서 제시된 효과크기는 두 집단에서 산출된 잠재변인의 분산이 동일한 경우에 공통의 표준편차를 적용해야 하므로 앞에서 검증한 요인분산동일성에서 산출된 공

표 2.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 간 잠재평균 분석

잠재변인	중학생		고등학생		효과크기(d)	전체평균/ 문항 수
	잠재평균	평균	잠재평균	평균		
자존감	0	9.714	.117***	10.061	.24	3.275
학업역량	0	9.651	-.249***	8.861	.69	3.011
사회적수용도	0	8.071	-.270***	7.423	.79	3.873
품행역량	0	7.040	-.035	6.967	.07	3.501
신체외모역량	0	11.164	-.311***	10.304	.41	3.578
부모지지	0	6.978	-.122***	6.766	.20	3.434
친구지지	0	8.802	.024	8.883	.05	4.421
교사지지	0	5.364	.022	5.463	.03	2.706

통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것이다.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d 값이 .2 이하이면 작은 것으로, .5이면 중간수준이고, .8 이상이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표 2에서 보면, 품행역량, 친구지지, 그리고 교사지지는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 간에 차이가 없으며, 그 외의 자존감, 학업역량, 사회적 수용도, 신체외모역량, 부모지지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전체평균을 보면, 친구지지 점수가 가장 높았고, 교사지지가 가장 낮았다. 각 변인들의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 친구지지 > 사회적수용도 > 신체외모역량 > 품행역량 > 부모지지 > 자존감 > 학업역량의 순이었다. 다음에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평균점수의 차이를 보면, 자존감만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학업역량, 사회적수용도, 신체외모역량, 부모지지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2.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의 집단별 상대적 영향력

두 번째 연구문제인 집단별 자존감 하위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3에서 보면 신체외모역량과 품행역량, 친구지지와 교사지지, 그리고 사회적수용도와 교사지지의 관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주요 변인간의 상관

()=고등학생

	자존감	학업역량	사회적 수용도	품행역량	신체외모 역량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자존감	1							
학업역량	.271 (.234)	1						
사회적 수용도	.190 (.159)	.145 (.047)	1					
품행역량	.152 (.126)	.101 (n.s)	.204 (.131)	1				
신체외모 역량	.143 (.154)	.083 (.099)	.193 (.222)	n.s (n.s)	1			
부모지지	.272 (.237)	.179 (.151)	.203 (.120)	.169 (.085)	.149 (.080)	1		
친구지지	.147 (.127)	.130 (n.s)	.409 (.245)	.134 (.118)	.424 (.046)	.176 (.113)	1	
교사지지	.203 (.179)	.119 (.158)	n.s (n.s)	.092 (.068)	.104 (.095)	.201 (.181)	n.s (n.s)	1

고등학생의 경우는 친구지지와 학업역량의 상관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에 중·고등학생 집단의 자존감 구조모형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은 측정모형이나 구조모형에서 집단의 모수치가 동일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두 집단의 모수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제약모형과 두 집단의 모수치가 다르다고 가정한 자유모형의 적합도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자유모형의 $\chi^2=871.489$, $df=259$ 이고, 제약모형의 $\chi^2=885.684$, $df=266$ 으로 그 차이 $\Delta\chi^2=14.195$, $\Delta df=7$ 로 나타났다. $\Delta df=7$ 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p<.05$ 수준에서의 유의미한 값인 14.067보다 크므로 자유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NFI, IFI, TLI 수치는 .90을 모두 초과하고 있고, RMSEA 값도 .019로서 자유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 두 집단의 자존감에 대한 경로계수가 동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의 경로계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의 변인들 간에 표준화 경로계수와 유의도 수준을 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에서 보면 중학생의 경우 품행역량과 친구지지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변인들의 상대적 크기는 학업역량> 부모지지> 교사지지> 사회적 수용도> 신체외모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모든 변인들이 자존감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는 학업역량> 부모지지> 사회적수용도> 신체외모역량> 품행역량>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의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

표 4,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경로에

표 4. 중학생 집단의 자존감으로의 경로계수 추정치(요인적재치에 동일성을 가한 모형)

()=표준화된 경로계수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P
학업역량 → 자존감	.261(.260)	.028	9.436	.000
사회적수용도 → 자존감	.106(.111)	.032	3.279	.001
품행역량 → 자존감	.031(.040)	.020	1.540	.123
신체외모역량 → 자존감	.039(.058)	.017	2.369	.018
부모지지 → 자존감	.144(.178)	.023	6.277	.000
친구지지 → 자존감	.013(.015)	.022	.610	.542
교사지지 → 자존감	.125(.155)	.023	5.541	.000

C.R. 값이 1.965 이상이면 유의함

표 5. 고등학생 집단의 자존감으로의 경로계수 추정치(요인적재치에 동일성을 가한 모형)

() = 표준화된 경로계수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P
학업역량 → 자존감	.237(.235)	.026	9.220	.000
사회적수용도 → 자존감	.094(.097)	.031	3.068	.002
품행역량 → 자존감	.072(.089)	.018	3.966	.000
신체외모역량 → 자존감	.083(.121)	.016	5.174	.000
부모지지 → 자존감	.118(.164)	.016	7.175	.000
친구지지 → 자존감	.054(.058)	.021	2.606	.009
교사지지 → 자존감	.064(.093)	.016	3.991	.000

C.R. 값이 1.965 이상이면 유의함

표 6.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

경로계수	중학생	고등학생	경로제약 χ^2	df	$\Delta\chi^2$	채택여부
동치제약모형(Equality Constraint Model)			871.489	259		
자유모형(Free Model)						
학업역량→자존감	.260	.235	871.926	260	.437	기각
사회적수용도→자존감	.111	.097	871.555	260	.066	기각
품행역량→자존감	.040	.089	873.704	260	2.216	기각
신체외모역량→자존감	.058	.121	875.035	260	3.547	기각
부모지지→자존감	.178	.164	872.320	260	.841	기각
친구지지→자존감	.015	.058	873.315	260	1.826	기각
교사지지→자존감	.155	.093	876.548	260	5.029	채택

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다음은 어떤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제약모형과 동일성제약을 가하지 않은 자유모형과의 $\Delta\chi^2$ 값을 비교하였다. 7개의 경로계수 각각에 대해 χ^2 값의 변화량을 계산하여 χ^2 값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두 집단 간의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존감으로의 경로계수의 차이이다. 표 6에서 보면 경로계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유일하게 교사지지였다. 즉 교사지지가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중학생 집단이 고등학생집단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존감 결정요인을 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로 보고, 각각의 하위요인들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중·고별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하위요인들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고 다음은 자존감에 대한 하위요인들의 영향력 차이를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존감에 대한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의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하위요인은 어떠한 요인인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과 역량지각 및 사회적 지지의 중·고별 평균 차이를 밝히기 위해 표준오차를 고려한 잠재평균 산출방식으로 알아보았다. 먼저 집단별 변인들의 평균차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친구지지와 사회적 수용에서 높게 지각을 하고 있었으며, 학업역량과 교사지지에서 낮은 지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되면서 부모보다는 친구에게 의존하는 발달 경향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며, 학업역량이나 교사지지가 낮게 나온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환경이 너무 경쟁적이고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이 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높은 학업성취를 기대하고 있고, 학업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전보다 낮아졌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온 요인은 학업역량, 사회적 수용도, 신체외모 역량, 그리고 부모지지였고 이들 중 자존감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중학생

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결과이며, 대부분의 선행연구와도 다른 결과이다. 청소년들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현실 지각능력이 발달해 자신에 대해 낮은 자존감을 갖는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안신호, 박영미(2005)의 자기수용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단점에 대해서는 불만이나 열등감을 갖지 않으며, 단점이 자신의 불행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자기수용능력 때문에 자존감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은 현실적으로 되지만,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존감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기-고양 능력을 발달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Harter(1986)의 자아체계 이론에서 역량과 자존감은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이론과는 부합되는 결과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면, 신체외모역량과 품행역량, 친구지지와 교사지지 그리고 사회적 수용도와 교사지지의 관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친구지지와 학업역량의 상관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 중 가장 높은 상관은 중학생의 사회적 수용도와 신체외모역량의 상관($r=.424$)이었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사회적 수용도와 신체외모역량의 상관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지만 그 크기는 상당히 작았다($r=.046$).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생의 경우, 학교 친구들과 잘 지

내는 데에 신체외모역량이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와 같은 현상이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의 자존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집단별로 알아보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구조모형이 다르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한 제약모형과 경로계수들이 다르다고 가정한 자유모형과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자유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존감에 대한 경로계수가 동일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밝힐 수 있는 데, 그 결과, 중학생은 학업역량> 부모지지> 교사지지> 사회적 수용도> 신체외모역량 순으로 나타났고, 품행역량과 친구지지는 자존감에 유의하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고등학생은 학업역량> 부모지지> 사회적 수용도> 신체외모역량> 품행역량>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순으로 자존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오수현(2010)은 신체외모역량이 다른 역량보다 자존감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했고,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문혜(1999)의 연구에서도 두 집단 모두 신체외모역량이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성차는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신체외모역량이 높은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표집의 크기

차이이다. 본 연구는 3,000명이 넘는 대 표집의 패널자료를 사용했고, 선행연구들은 300명 정도의 표집크기 이기 때문에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이 어렵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현재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학업에 대한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어 외모보다는 학업역량이 자존감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지지 중 부모지지가 고등학생 집단에게도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는 점은 아직도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Furman(1992)은 청소년기 후반에는 부모가 더 이상 중요한 지지 제공자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청소년기 후반에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 부모가 심리적 지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의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집단 간 경로계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사회적지지 중 교사지지 뿐이었다. 그 외의 모든 요인들은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두 집단의 교사지지에 대한 지각의 평균점수는 중학생($M=5.364$)과 고등학생($M=5.463$)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존감에 대한 교사지지의 경로계수는 중학생($\beta=.155$)과 고등학생($\beta=.093$)으로 기여하는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교사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해 중요한 지지원이다.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에 대한 문화기술연구를 수행한 김수정(2006)은 교사지지에 대한 낮은 지각이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생과의 비교가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고등학생의 교사지지에 대한 지각은 자존감 결정요인으로는 작용하지만 중학생에 비하면 그 크기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공교육의 붕괴가 특히 고등학교에서 심각하다는 현장의 소리가 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의 결정요인으로 영역별 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둘째, 자존감의 결정요인으로 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를 포함시킬 수 있지만 자존감과 하위요인들은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측정해야 하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자신에 대한 전반적 가치감인 자존감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 셋째, 자존감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은 학업역량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신체외모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넷째, 자존감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인 요인은 교사지지였다. 중학생의 경로계수($\beta=.155$)가 고등학생의 경로계수($\beta=.093$)보다 크게 나타나 중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지지가 고등학생보다 더 크게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Harter의 자아체계 모형을 기본 전제로 하였으면서도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이 Harter의 척도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제한점으로 남는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측정동일성 등의 동일성 검증을 엄

격하게 함으로써 문항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자 개인이 표집을 할 경우, 대단위 표집이 어렵고, 특히 고등학생은 학교 여건상 설문을 부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후속연구는 이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존감 결정요인의 타당성 검증 연구라기보다는, 기본 가정으로 받아들인 모형에서 요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였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둘째, 자존감 결정요인의 변화를 보려면 초중고를 연계해서 학교급의 이행효과도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의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다 보니 두 집단의 비교만 가능하여 초등학교 집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집단의 종단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신체외모역량이라는 성차가 큰 요인을 다루면서 성차를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도 연구의 제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지향보다는 실제적인 지향에 중점을 두었다. 청소년의 인지·사회·정서면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자존감을 형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개입할 때,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자존감의 안정성 때문에 변화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하위요인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자연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하위요인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다르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 이러한 결과를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제작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높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명숙 (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문혜 (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서울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정 (2006).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문화기술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혜, 송숙희 (1996). 자아개념의 차원·위계간 변량원 분석연구. *교육심리연구*, 10(3), 1-22.
- 김순혜 (2001).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타인 지각차이와 사회정서적 적응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5(3), 29-57.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송인섭 (1994). 자아개념의 다면·위계적 모형. *교육심리연구*, 8(2), 47-67.
- 안신호, 박미영 (2005). 자존감 결정요인: 영역별 능력과 자기수용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109-140.
- 오수현 (2010).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uhrmester, D.,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4), 1101-1113.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le, D. A., & Maxwell, S. E., & Martin, J. A. (2001). The development of multiple domains of child and adolescent self-concept: A cohort sequential longitudinal design. *Child Development*, 72(6), 1723-1746.
- Eccles, J. S., Midgley, C., & Adler, T. (1984). Grade-related changes in the school environment: Effects on achievement motivation. In J. G. Nicholls (Ed.),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pp.283-331). Greenwich, CT: JAL Press.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1), 103-115.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 97.
- Harter, S. (1986). The determinant and media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in the children. In Eisenberg (Eds.): *Contemporary Topic in Developmental Psychology*, 219-234. New-York: Wiley.
- Harter, S. (1989).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R. J. Sternberg & J. Kolligan, Jr. (Eds.), *Competence considered* (pp.67-97).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arter, S. (1990).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the nature of self-representations: Implications for the understanding, assessment, and treatment of maladaptive behavior. *Cognitive Therapy and*

- Research*, 14(2), 113-142.
- Harter, S., Whitesell, N., & Kowalski, P. (1992). Individual difference in the effect of educational transitions on young adolescents perception of competence and motivational orient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 777-808.
- Harter, S., Stocker, C., & Robinson, N. (1996). The perceived directionality of the link between approval of self-worth: The liabilities of a looking glass self orientation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6, 285-308.
- Marsh, H. W., Relich, J. D., & Smith, I. D. (1983). Self-concept: The construct validity of interpretations based upon SDQ.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73-187.
- Marsh, H. W. (1990). A multidimensional, Hierarchical model of self-concept: theoretical and empirical justific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 77-172.
- Marsh, H. W. (1993). Relations between global and specific domains of self: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importance certainty, and ide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975-992.
- Marsh, H. W. (199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s of factorial invariance: A multifaceted approac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 5-34.
- Ruble, D. N., & Frey, K. S. (1991). Changing patterns of comparative behavior as skills are acquired: A functional model of self-evaluation. In J. Suls & T. A. Wills (Eds.), *Social comparis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pp.70-112). Hillsdale, NJ: Erlbaum.
- Shavelson, R. J., & Hubner, J. J., & Stanton, G. C. (1976).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 407-441.
- Song, I. S., & Hattie, J. (1984). Relationships between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A causa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N. Y., 76, 1269-1281.
- Stipeck, D. J., Recchia, S. & McClintic, S. (1992). Self-evaluation in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7, 226.
- Uhrlass, D. J., Crosset, S. E., & Gibb, B. E. (2008). Self-perceived competence, relational victimization, and children's depressive symptoms: evidence for a sex-specific vulnerability-stress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1(4), 284-297.
- Wigfield, A., Eccles, J. S., Yoon, K. S., Harold, R. D., Arbretion, A. J., Freedman Doan, C., & Blumenfeld, P. C. (1997). Change in children's competence beliefs and subjective task values across the elementary school years: A 3-year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451-469.
- Wylie, R. C. (1979). *The self-concept: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 (Ed.),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1차 원고접수 : 2010. 09. 30.
수정원고접수 : 2010. 11. 17.
최종게재결정 : 2010. 12. 02.

The Determinants of General Self-Esteem in Adolescents: The Influences of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s

Kim Soon hy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s in regards to adolescents. The basic assumption underpinning of this research exercise is Harter's multifaceted hierarchical model. 2844 middle schoolers and 3349 high schoolers responded to question items corresponding to the same meaning of those contained in the original SSPC(Harter, 1982) instrument.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means of multiple group analysis i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rough SPSSWIN 18.0 and AMOS 18.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high schoolers exhibited a higher perception of self-esteem than middle schoolers. Second, the means of specific domains in perceived competences and social supports differed across both domains and grade. In terms of general tendencies, the two groups indicated higher levels of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than physical appearance. Third,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the sub-factors,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adolescents' self-esteem. In the case of middle schoolers, the order of predictive power was academic competence > parents' support > teacher's support > social acceptance > physical appearance, respectively. In the case of high schoolers, the order of predictive power was academic competence > parents' support > social acceptance > physical appearance > behavior conduct, respectively. Fourth, only teacher's support showed a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as being a predictors of self-esteem between the two groups. Tak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to consider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intervention related to self-esteem should be different across the various ages of adolescence.

Key words : general self-esteem, self-perceived competence, social support, developmental difference